

## 부화장 기동으로 양질의 병아리 공급 효과 기대



▲보령시 천북면 오포리에 건립된 부화장 전경

**본**고는 지난 8월 8일 부화장 준공식을 가진 농업회사법인(유)한국원종(대표이사 인경섭)을 찾아 원종계 산업의 공급계획과 종계산업의 발전방안을 들어보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본회 최준구 회장을 비롯하여 한국원종의 최대주주인 체리부로 김인식 사장 등 주주회원사 및 종계 농가 및 관련인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부화장 탄생을 축하해 주었다. 이날 보령축산의 윤성희 사장(초대 한국원종 대표)은 한국원종의 발전에 기여하고 부화장 건립에 공헌한 공이 커 감사패를 수여받기도 하였다.

### 아바에이카 국내 보급

2002년 10월 31일 출범한 한국원종은 당시 하바드를 공급하면서 하림(코브)과 삼화육종(로스)과 함께 어깨를 견주게 되었다. 하지만 하바드 육종회사와의 이견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2005년 2월부터 아비아젠그룹의 아바에이카 플러스(Arbor Acres Plus) 육용종계를 국내에 분양하기 시작하면서 원종시장에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게 되었다.

한국원종은 보령시 천북면에 16,000수 규모의 육성농장에 이어 2003년도에 신축한

보령시 천북면 장은리 소재 성계 제1농장(17,000수 규모)과 2004년도에 신축한 성계 제2농장(17,000수)을 운영하면서 현재 전국 시장의 22.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 자체 부화장 확보로 경쟁력 제고

그동안 한국원종은 홍익부화장에서 부화를 임대하여 종계병아리를 공급해 왔으나 원종계 농장에서 자체 부화장이 없는 점과 종란 이송 등의 불리한 점 때문에 부화장 건립을 모색해 왔다. 결국 명실공히 자체 부화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회원사 및 종계장들에게 보다 고품질의 종계 병아리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종계 농장에서의 자체부화장이 없던 핸디캡을 모두 날려버리고 새로운 도전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다.

8월 10일에 첫 입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원종 자체적으로 생산된 병아리는 9월 1일에는 국내 종계장에 보급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당 12만수 종계 공급

이번에 신축된 GPS 부화장은 보령시 천북면 오포리에 위치해 있으며, 건축면적이 1,727평방미터에 부화장, 관리사 등 부대시설이 들어서 있다. 공사비는 총 17억원이 소요되었지만 이는 용역을 맡기지 않고 자체적



▲부화장 준공식 장면

으로 공사를 하였기 때문에 원가절감을 기할 수 있었음을 설명하였다.

부화장은 주간 12만수의 생산능력을 자랑



▲한국원종 인경섭 대표이사



▲장은리에 위치한 성계농장 광경(차단방역을 위해 농장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 ▲철저한 방역관리로 건강한 종란을 공급한다.

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600만수(월간 50만수)의 PS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부화기 기종은 네덜란드의 르폼 부화기로 발생기(Smart Hatch) 8조, 발육기(Smart Set-77) 12조를 갖추고 있다. 발육기는 입란능력이 76,800개로 싱글발육기인데, 4개 구획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구획별 제어가 가능하고 환기용량이 커서 부화율과 병아리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부화기보다 온도셋팅 도달시간을 50%로 단축시키고, 냉각용량도 40% 증가시킨 신모델로 CO<sub>2</sub> 조절을 통한 부화성적 개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발생기 또한 이란 후 발생작업까지의 모든 과정이 완전 자동으로 완벽하게 조절(온도, 습도, O<sub>2</sub> /CO<sub>2</sub>)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완벽한 차단방역

부화장 내부는 종란보관실, 집란실, 발육실, 발생실, 검란이란실, 세척실, 작업실, 분양실로 크게 나뉘고 기계실, 난각처리실, 박스실, 휴게실 등이 함께 설계되어 있다. 부화

장은 개인소독시설과 대형 차량소독조가 설치되어 외부로부터의 철저한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발육실 등 부화기 내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샤워를 해야 출입을 할 수 있다.

부화장에서 발생하는 종계병아리는 회원사(주주)들에게 70%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일반 종계장에 분양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 건강한 병아리 생산을 위한 종란생산 노력

한국원종은 1개동의 원종계 육성사와 2개동의 원종계 성계사에서 철저한 방역프로그램을 바탕으로 건강한 종란을 생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종계 농장은 최신식의 초아타임 록셀사의 사양시설을 도입하여 최첨단 자동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2, 3중의 차단방역 및 위생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완벽한 병아리 생산에 전 직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한국원종은 육성농장에서 18주령까지 길러진 원종계가 전용 수송상자를 이용하여 성계농장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육성농장 및 성



▲네덜란드 르폼부화기가 설치된 부화장 내부전경

계농장이 격리되어 있으면서도 수송차량으로 20분정도의 소요시간이 걸리게 되어 수송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다. 성계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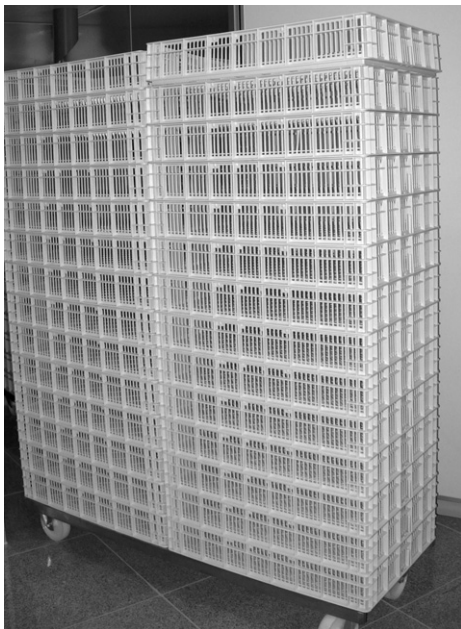
에서는 64주까지 생산을 하고 도태를 시키는데, 장기간 사용하여 농장이 오염될 경우에는 청정 지역으로 옮겨 오직 깨끗한 병아리 생산에 전력을 다할 뜻을 밝혔다.

원종계장의 기본 원칙은 차단 방역이기 때문에 모든 계사는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도록 철조망을 설치하였다. 계사 내외부로 항상 소독을 하고 계사내부는 매일 안개분무로 미세먼지 속에 있는 세균을 30초간 소독하고 있

다. 질병은 전담 수의사를 통해 컨설팅을 받으면서 질병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양가 서비스에 총력

명실공히 부화장까지 겸비한 원종계 육종 회사로 거듭나면서 인경섭 사장은 앞으로 사양관리 세미나 등 대농가 서비스에 주력할 뜻을 밝혔다. 육종이 점점 변화되고 사양관리 또한 품종의 특징과 계절에 맞게 적절히 적용을 시켜야 충분한 육계성적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중점을 두어 대농가 서비스에 전력한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종계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 강조하고, 종계장도 시설이 천차만별인 만큼 사육시설개선에 노력하여 건강한 병아리가 좋은 환경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기를 희망하였다.



▲발생기 모습



정리 | 김동진 편집장  
dj@poultry.or.kr